



# 불막이 · 불지킴이 노릇하는 풍수

이 와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수로

**우리** 옛 선인들은 사람이 거할 땅을 생명이 없는 무기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땅 속에는 약동하는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이 겉으로 표출되어 산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돌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흙의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모양을 사람들은 호사스런 도구들을 빗대어 말하기도 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으로부터 전설 속이나 존재하는 봉황이나 용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이에 빗대어 땅의 모양을 부르곤 했다. 예를 들면 금비녀형, 활짝 핀 매화형, 필통형, 붓형, 야자형(也字形), 누운 소형(臥牛形), 알푼은 금닭형(金雞抱卵形), 물 마시는 말형, 개젓통형(狗乳囊形), 여의주 다투는 두 용형(雙龍弄珠形), 춤추는 봉형(舞鳳形) 등 수백 종에 이른다. 이들 땅을 묘사한 형국은 인간이 복을 받고

싫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용되었다.

붓과 필통은 문방구로써 그런 봉우리 아래에서 학자와 문장가가 나온다고 여겼고, 알푼은 금닭형이나 개젓통형 등이 연상시키는 심리적 기제에 의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였으며, 다리가 많은 지네의 모양을 가진 땅에서는 자손이 번창하고 재화(財貨)가 넘친다고 여기기도 했다. 이렇게 풍수의 형국은 우리네 생활감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풍수의 형국에 대해 사람들은 땅을 통해 주어지는 운명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풍수경전에도 “하늘의 능력을 빼앗아, 주어진 운명을 바꾸어 보겠다(奪神功, 改天命)”라는 적극적인 운명개척론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형국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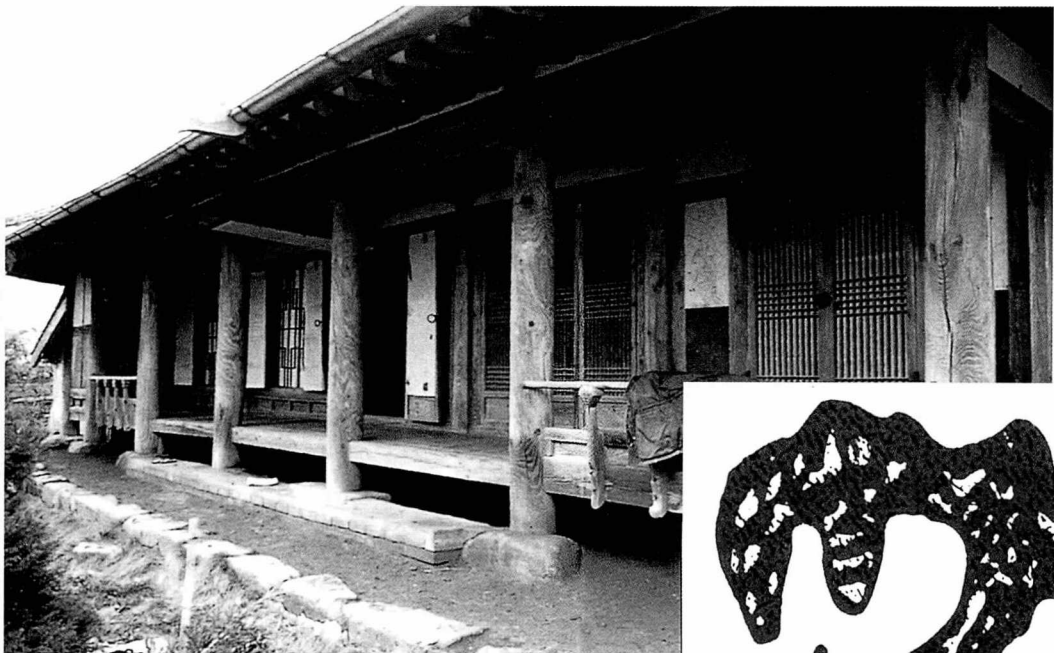
흉한 모양은 고치고, 기(氣)가 부족한 곳은 보충하고, 너무 지나친 곳은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논리가 비보(裨補)이다. 그 비보의 방법에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이름을 다시 짓거나 탑을 세우거나, 당간·숫대와 같은 조형물을 세우는 등의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물길을 내거나 숲을 조성하거나, 심지어는 산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풍수적 비보 가운데에는 불과 관련된 상징체계도 있었다. 불을 제어하기 위한 비보도 있지만 불을 유지하기 위한 비보도 있었다.

불을 제어하기 위한 비보의 상징체계는 다음과 같다. 불의 기운을 가진 형국이 있어 마을에 화재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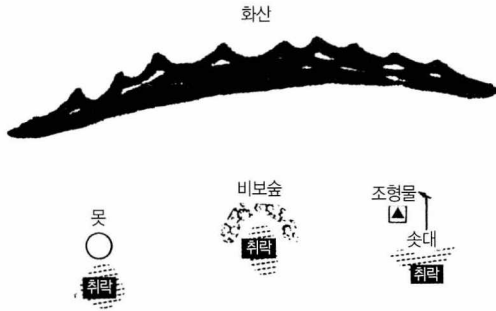
주 일어나므로 물의 기운을 비축하여 방어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못이나 연못을 만들거나 물길을 내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계만이 아니라 불의 타 없애버리는 속성과 불타는 모습을 통해 연상할 수 있는 파괴성과 폭력성에 대한 경계감이 깔려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불의 타 없애버리는 속성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태워 없애버림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정화(purification)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많은 종교들이 종교적 성화에 이르기 위해 혹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불을 극복하는 의례들을 행해왔음을 기억한다면 불에 대한 이러한 연상법칙도 무리



▲ 아자형 터의 집 문장을 끝맺는 글자인 아(也)자형 터에서는 문장기가 태어난다고 한다. 전북 김제군 월촌면 정화리 정씨집 사랑채, 1997년 촬영.

▶ 아자 형국도(경남 함안 향교터)



▲ 火氣 방어 개념도

는 아니다.

이와 같이 불을 방어와 극복의 대상만이 아니라, 불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을 지키고 재액(災厄)을 막을 수 있다는 사고도 있었다. 흔히 불을 피워 신을 불러들인다거나 죽은 영혼을 불러들여 불을 통해 그들을 상징화하려 했던 것은 우리의 제사문화를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킴이’로서의 불이 풍수의 형국론을 통해 구현되는 예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풍수적 비보의 사례 중 우선 ‘불막이’가 우리네 사는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자.

밀양시 부북면 오례리에서는 풍수의 형국상 화산(火山; 불타는 듯한 뾰족뾰족한 산)에 해당하는 산의 모양 때문에 건조하고 화기(火氣)가 서린다 염려하여 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을 아래와 위쪽으로 아랫숲, 윗숲을 만들었다.

봉화군 봉화읍 거촌2리에는 화산에 해당하는 안동의 학가산이 비치고 있어서 화재가 잦다고 하여

마을 앞에 바람을 막아주는 비보숲을 조성하고 두개의 못까지 조성하여 화기를 진압하고자 했다. 마을의 집성가인 의성 김씨들은 “이후 불이 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화기방어를 위해 못을 설치한 예로는 영산과 순흥 등이 있다.

경북 군위군 신태리는 마을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서 마을 앞에 나무로 오리모양의 숯대(높이 5M)를 만들어 마을을 보고 있게 하여 그 상징성으로 화재를 막고자 했다.

청송군 현서면 구산동과 천전동에서는 화기를 진압하기 위한 민속놀이로 회싸움이라는 놀이비보가 행해졌다. 두 마을은 ‘화산번디기’라는 이름의 붉은 모래산을 중심으로 마주 보고 있는데 해마다 발생하는 화재가 이 산의 화기로 인해 연유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를 막고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회싸움을 하였다고 한다.

흔히 문장가가 태어난다고 전해진 야자형(也字形) 형국은 한편으로는, 야자(也字)의 모양이 불타는 듯하다고 해서 화기가 충천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전북 김제군 월촌면 장화리 정씨네 집은 야자형국의 중심에 집이 있어 그 화기를 꺾고 겸사겸사 우물도 마련하기 위해 마당 한가운 데에 못을 팠다고 한다.

이렇게 불이 피해야 할 재액이었음과 동시에 불은 인간사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도 하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의 발견에 대한 신화가 이러한 불의 이중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감추어 둔 불을 훔쳐 인간에게 내줌으로써 인간에게 맨 처음 문명을 가르친 장본인이 된다. 그러나 이후 판도라의 상자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됨을 암시한다. 제우스의

복수로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는 고통을 겪는다. 낮에 쪼아 먹힌 간은 밤에 재생됨으로써 인류의 삶 자체가 영원한 고통의 연속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불은 마치 요즘 사이버세계와 유비될 정도로 인간사에 필요악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인류역사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의 아타르(Atar)라는 정령은 불의 정령으로 가장 힘이 세고 선한 것으로 숭배되는 존재이다. 우리 전통에도 불은 생명력과 창조력을 상징해서 아이를 잉태케 하는 원소가 바로 불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흔히 남자 아이의 성기를 일컫는 '불알'이라는 말도 그러한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고, 아이를 잉태케 하는 신도 '불도신'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풍수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불을 상상하기도 했다. 바로 '불지킴이' 역할을 하는



▲ 지네형국

풍수적 형국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사례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풍수의 형국론에서도 불은 생명력과 복을 상징하기도 했다. 등잔형이나 벽에 걸린 옥등형이 그것인데, 이 형국을 통해 잡귀가 물러간다고 믿어 옛날에는 집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 며느리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다. 실제로 전북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마을사람들은 마을이 등잔형 터라 큰 재화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지네형국은 지네가 다리가 많은 턱에 자손이 번창하고 재복(財福)이 있을 것이라 믿어 풍수논리상 길한 형국에 해당한다고 믿는다. 많은 민간설화에서 지네는 '위험함'의 성격을 지닌 영물로 그려진다면, 풍수 형국론에서는 이처럼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네형국을 보존하기 위해 습지동물인 지네를 가두려고 숲을 조성해 습기를 보존하기도 했다. 전북 옥구군 성산면 고봉리가 이러한 지네형국인데, 지네는 불빛을 만나면 움직이지 않는 속성이 있다하여 안산(案山, 풍수적으로 길지의 전면에 배치된 산)인 봉우재의 봉화대가 그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었다고 한다. 물론, 습지동물인 지네의 속성을 감안하여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기도 했다. 현재 그 마을의 봉화대는 사라졌지만 미군 기지가 설치되면서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예전의 부귀영화가 지속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한다.

이와 같이 풍수 형국을 묘사하는 레토릭을 통해 볼 때, 불은 막아야 될 대상이면서도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다. ㉞